

근대 한국어 이후의 문법사

홍종선

1. 머리말
2. 한국어 문법사의 시대 구분과 근·현대 한국어
3. 근대 한국어의 문법사적 특징
4. 현대 한국어의 문법사적 특징
5. 마무리

1. 머리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의 문법도 일부 추적할 수 있는 한국어는, 그 동안 많은 연구를 진행하여 이제 고대 한국어에서 시작되는 문법사 체계를 어느 정도 구축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 비록 시대별로 정밀성과 확실성에서 차이가 적지 않으며 각 시기 별로도 더 천착해야 할 과제들이 매우 많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도 한국어 문법사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 더하여 시대별 또는 더 작은 단위의 시기별로 문법사 전반을 통시적으로 그리고 공시적으로 체계화하는 고찰도 요구된다.

한 세기를 넘게 진전시켜 온 한국어 문법사 연구는 한 때 한국어학 연구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고 때로는 특정한 주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하여, 그 결과 높은 연구 성과를 올리었다. 특히 오랜 기간 중세 한국어에 관한 연구는 매우 깊이있게 진행되었고, 근년에는 구결 등의 차자 자료의 연구가 활발하여 이전까지 영성하였던 고대 한국어의 문법에도 많은 조명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면 근대 한국어 문법은, 현대 한국어와 아주 가까워서 오늘날 우리말을 연구하는 데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 왔다. 이는 오늘에 바로 앞서는 근대 전환기(개화기)의 한국어 문법에 더욱 크게 적용되는 문제이다.

중세 한국어는 우리말 역사의 중간 허리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정밀한 연구는 그대로 상·하 시대로 확산할 때 한국어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더구나 갑자기 다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훈민정음 언어 자료는 연구 의욕을 높이기에 충분하였고 앞으로 계속 치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서 중세를 이어받아 현대를 잇는 근대 한국어의 중요성이 그만 못하다고 볼 수는 없다. 중세에 비해 더 다양한 언어 자료가 출현하는 근대 시기의 한국어를 좀더 적극적으로 조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사 연구와 현대 한국어 연구의 사이에 자리한 근대 전환기에도 더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격동기가 시작되어 언어에도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이 시기는 오늘날의 한국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폭넓은 연구

가 필요하다.

한국어사의 연구와 서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각 시대별로 나누어 각 시기에 나타난 한국어의 음운, 형태, 통사, 의미 등을 공시적으로 고찰하여 각 시대별 문법의 전체 체계를 서술하는 방법이 있으며, 문법의 각 하위 영역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분야별로 변천 양상을 서술하는 방식도 있다. 이 두 가지 연구는 모두 필요하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도 하다. 대체로 개별 연구 논문에서는 세부 주제에 관해 공시적인 조명과 통시적인 고찰이 논문에 따라 나타나지만, 국어사 저술에서는 지금까지 대개 공시적인 단면 서술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보니 국어사의 하위 분야별 저술도 매우 적다. 가령 음운사, 형태사, 통사사, 의미사, 어휘사 등 비교적 큰 하위 영역은 물론 이보다 더 세부적인 주제별 통시적 저술도 아직 매우 적은 실정이다. 시대별 한국어사 이상으로 분야별·주제별 한국어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문법사 분야에서는 전반을 살피는 저술이 2종 나와 있는데, 권재일(1998, 2021)에서는 주제별로 중세 한국어 이후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였고 홍종선(2017)에서는 고대 한국어 시기부터 시대별로 공시적인 체계를 서술하였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문법사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조명이 덜 이루어져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근대 한국어 이후의 문법사를 개관하기로 한다. 현대 한국어도 통시적인 문법사의 관점으로 언급할 것이다.

2. 한국어 문법사의 시대 구분과 근·현대 한국어

한국어사를 연구 서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어의 변천을 그 양상에 따라 변화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특징을 개관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어 문법사 연구에서도 그러하다. 한국어 역사의 시대 구분은 지금까지 여러 논문과 저서에서 언급되었지만 한국어사의 하위 분야에서의 시대 구분은 아직 초기적인 단계이다. 하지만 한국어사의 충실한 시대 구분은 한국어사의 각 하위 분야별 시대 구분이 진행되어 이들을 종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하위 분야별 시대 구분 역시 그보다 작은 하위 주제별 시대 구분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체계화한 한국어사는 다시 그 하위 분야와 주제별 변천사 연구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상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대개 한국어사 책을 저술하면서 도입 부분에서 다루어졌다. 시대 구분은 한국어의 변천 양상에 충실하여야 하나 왕조의 교체나 전란 등 역사적인 커다란 사건이 비교적 크게 참조된 면이 있다. 국내외의 역사적인 변화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만 한국어의 변천 내용에 좀더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이기문 『국어사개설』(1961, 2006)에 따라 ‘고대국어(신라: 7세기 후반~9세기), 전기중세국어(고려: 10세기~14세기), 후기중세국어(조선 전기: 15세기~16세기), 근대국어(조선 후기: 17세기~19세기), 현대국어(20세기 초~현재)’로 나누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왕조의 교체와 임진란으로 언어 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병채 『국어발달사』(1989)에선 ‘고대국어(전기: ~1103년, 후기:

1103년~1443년), 중기국어(1443년~1598년), 근대국어(1598년~1894년), 현대국어(1894년~)’으로 설정하여, 훈민정음 반포를 기준으로 고대와 중기를 나누었고 고대국어도 전기와 후기를 분간하였는데 이는 하야육량(1955)를 발전시킨 것이다. 김영환(1978, 1989)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에서는 ‘고대노예소유국가시기(고조선, 부여, 진국), 봉건국가분립시기(3국), 통일봉건국가시기(고려~16세기), 봉건사회붕괴시기(17세기~19세기 중반), 부르췌아민족운동시기(19세기 후반~)’로 시대를 구분하였고, 류렬 『조선말력사』(1990~2005)는 ‘고대(기원전 1000년 경~기원전 3세기), 중세전기(기원전 3세기~10세기 초), 중세중기(10세기 초~14세기: 고려), 중세후기(15세기~16세기: 조선 전기), 17세기~19세기 중엽, 19세기 중엽~1925년, 1926년~현재’로 나누었다. 이들에서는 시대 구분에 사회체제적인 요소를 많이 반영하고, 근·현대 한국어에서 시기를 세분하는 특징을 보인다.¹⁾

지금까지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고대-중세-근대’라는 서구의 역사에서 전개해 온 3분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봉건 제도를 시대 구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서양사에 동양 또는 한국의 역사를 꼭 맞출 당위성은 없으며 언어사가 일반적인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해야 할 필요는 더구나 없다.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어사와 한국어 문법사는 한국어의 변천 양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적합한 시대 구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어 문법사의 시대 구분은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중요한 근간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또한 문법의 변천 양상에 따라 독자적인 체계를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어사의 시대 구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시기는 ‘고대 한국어’의 범위 설정인데 이는 한국어 문법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대 한국어의 시작을 이전 연구에서는 향가 등의 언어 자료가 전해지는 신라 시대 이후부터로 잡기도 하였으나, 최근 들어 그보다 앞선 구결과 이두 등 직접 자료가 여럿 발견되고 있어 영성하나마 삼국 초기부터 한국어사나 한국어 문법사 서술의 시작 시기로 잡을 수 있다고 본다. 고대 한국어의 하한선 즉 중세 한국어와의 경계 문제는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언어 중심지가 동남부에서 중부로 바뀐 나말여초를 경계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훈민정음 반포를 기준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언어 그 자체라기보다 언어를 변화시킬 외적인 요인들이다. 이러한 왕조의 교체에서 원인을 가져오기보다, 신라와 고려 시기의 언어를 가능한 한 정밀하게 비교하여 언어 모습에서 시대 구분의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 반포는 한국어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지만 그것이 한국어 자체에 얼마나 크게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좀더 고찰해야 한다. 따라서 당시 시대의 언어 자체에 나타난 변화 내용을 살펴서 변화의 여러 마디 가운데 어느 곳이 고대와 중세로 나눌 정도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대와 중세, 중세와 근대의 구분은 시대 구분에서 가장 큰 2개의 분기점이기 때문이다.

1) 이 밖에도 한국어사 저술이나 논문에서 한국어사 시대 구분 논의가 여럿 있으나 본고의 고찰 대상이 아니므로 생략한다.

홍종선(2017)의 한국어 문법사에서는 ‘고대 한국어’를 삼국 시대부터 시작하여 10세기 초엽의 신라 말까지로 잡았다. 개성으로 수도를 정하는 고려의 건국부터 고대 한국어와 구별되어 ‘중고 한국어’를 설정한다. 석독 구결로 대표되는 이 시기는 13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음독 구결과 문법 내용을 많이 달리하므로 그 이전까지에 해당한다. 음독 구결 언어의 문법 양상은 석독 구결보다도 15세기의 한국어와 더욱 가깝다고 보아, 13세기 후반부터 16세기 말까지 약 300여 년을 ‘중세 한국어’로 배당하였다. 하지만 이는 현재로서 잠정적인 시대 구분으로, 중고 한국어 시기의 문법이 좀더 풍부하고 정밀하게 밝혀진다면 이 시기가 독자적으로 있든가 또는 고대 한국어나 중세 한국어에 통합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석독 구결과 대비되어 음독 구결에서 보이는 문법 체계의 변화는, 한국어사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국어 문법사에서는 크게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 가운데 상당수가 꼭 음독 구결 당시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날 이러한 변화들을 음독 구결에 와서야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재로서는 음독 구결의 등장을 시대 구분의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문제는 그 이전의 언어 자료에서 보이는 문법에 비해 음독 구결에 새로 나타난 문법 변화가 고대와 중세를 가를 만큼 크고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중세 한국어는 고대(또는 중고)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의 시기를 설정하면서 그 사이의 시기로 자연스럽게 배당된다.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의 구분은 임진란을 경계로 하는 견해가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연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의 논저에서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 임진란을 전후하여 한국어는 많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어 문법사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만하다. 고대 한국어나 중세 한국어 안에서 전기와 후기 또는 전·중·후기로 나누는 제2차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비록 다른 시기에 비해 더 긴 기간은 아니더라도 현대 한국어와 가까운 근대 한국어에서는 가능하다면 제2차 하위 구분을 하는 것이 한국어사나 한국어 문법사를 더 정밀하게 설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근대 한국어’는 임진란 이후인 17세기 초부터 시작하여 19세기 말까지 약 300년의 기간을 갖는다. 이 짧지 않은 3세기 동안의 한국어 문법사를 전·후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홍윤표(1995)에서는 18세기 중반을 그 시기로 보았다. 18세기 중엽에는 이전부터 불안하던 ‘ㆍ’가 비음운화하며 ‘ㆍ’와 ‘ㅡ’로 대립하던 조사나 어미의 형태가 ‘ㅡ’로 통합되어 간다. 18세기 말에는 활용 어미의 어순이나 목록 체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파생 접사도 다양해지며 주격 조사 ‘가’의 쓰임도 크게 늘어난다. 부정문이나 피동, 사동 문장에서 장형이 현저하게 사용 폭을 넓히고 명사화 구문 대신에 ‘~ 것’ 통사 구조를 갖는 구문형으로 바뀌는 변화가 뚜렷하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18세기 후반 이후를 근대 한국어 후기로 잡을 수 있다.

갑오경장 이후 시작한 현대 한국어는 바로 오늘날 한국어에 직접 관련을 갖는 문제이므로 그 시대 구분 역시 분기점 설정을 좀더 섬세하고 예민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막연하게 19세기와 20세기라는 세기 바뀔보다는 갑오경장이라든가 개항

등의 사건을 고려하면서 그 전후 언어의 모습을 고찰하여 구체적인 연도를 밝히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오늘날 말이 속한 시기이며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언어 환경의 변화도 빨라 이에 따라 언어의 변화도 크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2차 하위 시기 구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19세기 중·후반부터 시작하는 개항과 사회 변혁은 우리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어휘 면에서의 변화는 특히 앞서가고 심하여 어휘사에서는 문법사보다 현대 한국어의 시기 설정을 좀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이다. 흔히 개화기라고 일컫는 근대 전환기 이후 한국어는 격동하는 사회 환경에 따라 여러 면에서 빠르고 커다란 변화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어서, 이 100여 년의 기간을 ‘현대 한국어’라는 하나의 시대 구분 안에 넣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현대 한국어는 갑오경장부터 일제 강점기가 시작하는 1910년까지를 제1기로 나누어 현대 한국어 형성기로 볼 수 있다. 1910년부터 광복을 맞는 1945년까지는 우리말이 국어에서 공용어로 떨어져 일본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2기가 되며, 광복 후 남북으로 나뉘어 오늘에 이르는 시기를 제3기로 나눌 수 있다. 다만 1945년부터 시작되는 분단 한국어 시기는 오늘날까지 무려 3/4세기를 넘기는 긴 기간이고, 또한 매우 격심한 언어 변화 환경에 놓여 있으므로 이 시기를 더 세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컴퓨터 등 전산 매체의 확대 등으로 언어 표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 1990년대나 2000년대 이후 시기를 그 이전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한국어 문법사의 시대 구분을 간략히 살피었다. 여기에는 각 시대별 구분의 근거나 언어 특징을 함께 논의해야 하지만 다음 장에서 근·현대 한국어의 문법사적 특징에 관해서만 서술하기로 한다.

3. 근대 한국어의 문법사적 특징

근대 한국어에 나타난 문법사적인 특징은 어휘 형태면에서는 다양한 형성이 나타나지만 통사적 표현에서는 중세 한국어에 비해 굴절이나 활용 등의 형태 체계가 간소화하는 경향을 갖는 것이다. 이제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 문헌 자료에 나타난 근대 한국어의 문법사적 변화 내용들을 간략히 살핀다.

근대 국어 문헌에서 ㅎ종성 체언은 대부분 ‘ㅎ’의 실현이 문란해지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하며, ㄱ곡용도 거의 없어진다. 중세 국어에서 대표적인 의존 명사였던 ‘ㄷ’와 ‘스’는 명사로서의 쓰임이 매우 위축되고 ‘-ㄴ들, -르시’ 등과 같이 어미화하는 용법이 더욱 늘어난다. 1인칭의 재귀 대명사에서 ‘즈가’는 사라지고 ‘저’만 남는다.

주격 조사는 ‘이/ㅣ’가 주로 쓰이면서, 모음 아래에선 17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가’가 같이 쓰이다가 점차 ‘가’형으로 통일되는데 근대 한국어 후반에는 ‘이가’형도 함께 나타난다. ‘ㆍ’를 가진 조사들과 활용 어미들은 점차 ‘ㅡ’형으로 바뀌어 정착한다. ‘ㅅ’가 관형격 조사로 쓰이는 예는 초기부터 계속 줄어 후기엔 아주 드물게 나타나며,²⁾ 서술격 조사의 종결형은 19세기로 내려오면서 ‘이라’형을 대신하여 ‘이다’가

쓰이기 시작한다. 높임의 호격 조사 ‘하’는 18세기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다. 처소격 ‘애/에/예/이/의’는 18세기 이후 점차 ‘에’로 귀일하는 방향성을 갖는다. 여격에서 ‘의손디’는 18세기엔 사라지고, ‘드려’는 19세기까지 일부에서 쓰이며 ‘더러’로 바뀐다. 비교격 ‘두곤’은 18세기 이후 ‘보다’로 대체되며, ‘에셔’는 쓰임이 줄어간다. 접속조사 ‘과/와’는, 17세기에 들어 ㄹ말음 아래에서 ‘과’와 ‘와’가 혼동되어 쓰이다 그 이후에는 ‘과’가 주로 온다.

보조사로는 ‘는/은, 만, 도’가 대표적이며,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보조사가 있다. ‘씩장’은 ‘씩지’로 바뀌어져 가고, ‘터로’는 19세기 말에 나온 ‘쳐림’에, ‘다이/다히’는 ‘대로’에 밀려난다. 강세나 한정어 보조사 가운데, ‘곰’과 ‘록’은 초기까지 쓰이며 ‘곶/웃’과 ‘봏/봏’은 ‘곶’으로 통합된다.

동사와 형용사로 모두 쓰이는 양용 동사는 ‘똥다, 크다’ 등 많이 있지만 중세에 비해 줄어든다. 중세에서 매우 널리 쓰이던 보조 동사 용법의 ‘-아 잇-’은 점차 출현 범위가 줄어 후기에서는 자동사 아래로 쓰임이 제한되고, 그 자리를 ‘-고 잇-’이 대신한다. ‘가-, 오-, 내-, 두-, 놓-, 주-’ 동사들은 보조 용언으로서의 용법을 확실하게 갖는다.

선어말 어미로 주체 높임에 ‘-시-’, 객체 높임에 ‘-습-’, 상대 높임에 ‘-이-’가 있다. 객체 높임은 그 기능이 약화되면서, ‘-습-’이 주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으로도 기능하는 변화를 겪는다. 현재 시제에는 ‘-느-’와 근대에 생긴 ‘-느/ㄴ-’, 과거 시제에는 ‘-더-와, 16세기에 나타나 근대에서 자리잡은 -앗/엇-’, 미래 시제에는 ‘-리-와, 18세기 말부터 쓰이는 -겻-’이 있다. 서법에는 확인법 ‘-거-’, 단정법 ‘-니-’, 감동법 ‘-도/똥-’, 회상법 ‘-더-’ 등이 있다. 특히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는 ‘-니-, -더-’가 시제 선어말 어미 아래에 놓이면 서법 기능에만 충실할 뿐이다. 인칭법 ‘-오/우-’는 근대에 들어 곧 기능이 약화되면서 소멸의 길을 걷는다.

종결 어미로는, 18세기 중엽부터 보이는 ‘-오’가 세력을 넓히며 ‘-다/라’와 더불어 평서형을 담당한다. 감탄형에는 중세 말기부터 나타난 ‘-고나’가 ‘-구나’로도 활발하게 쓰이고, ‘-노-, -도-’와의 결합형도 많이 나타난다. ‘-괴야, -르샤’는 18세기 이후 사라진다. 의문형은 중세 용법이 그대로 이어지지만 ‘-ㄴ다, -르다’ 자리를 점차 ‘-냐/뇨’, ‘-랴/료’가 차지하게 된다. 19세기에 발달한 ‘-요’가 쓰임이 넓어지고, ‘-아/어’와 ‘-지’도 19세기 들어 많이 쓰인다. 명령형은 이전부터 쓰이던 ‘-라’에, 새로 쓰임이 늘어나는 ‘-고/오, -소, -게’형이 함께 쓰인다. 청유형에는 16세기에 나타난 ‘-자/자’와 함께 ‘-새’형도 쓰인다. 연결 어미는 그 형태에서 약간의 변화를 경험할 뿐 중세에서의 용법에 큰 변화가 없다. ‘-ㄴ녕, -과녀, -디록’ 등의 어미가 사라지고, ‘-니씩, -랴면, -지마논, -르디언정’ 등과 같이 새로운 어미들이 다수 나타난다. 선어말 어미 ‘-거-’ 등이 결합하여 어말 어미로 재구조화한 형태도 많다. 특히 19세기 말의 문헌에는 다양한 어미 형태들이 새롭게 나타난다. 전성 어미도 중세와 같은데, 명사형

2) 이후 ‘초기, 후기, 말기’는 각각 ‘근대 초기 한국어, 근대 후기 한국어, 근대 말기 한국어’이다. ‘중세’는 ‘중세 한국어’, ‘근대’는 ‘근대 한국어’, ‘현대’는 ‘현대 한국어’이다.

이나 관형사형에 ‘-오/우-’의 결합이 수의적이 되면서 ‘-오/우-’는 점차 사라져 가면서 파생 명사와 동명사의 형태 구분이 없어진다.

근대 문헌에서 새로 보이는 파생어나 합성어가 이 당시에 새로 생겨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근대에서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고 다양한 모습을 갖는다. 파생 접사도 그 목록이 중세에 비해 훨씬 풍부해진다. 접두 파생은 명사나 동사에서 많이 나타난다. 출현이 잦은 명사 접두사로는 ‘군-, 굴-, 놀-, 돌-, 싱-, 출-, 춤-’ 등이 있다. ‘암ㅎ, 수ㅎ’은 후기에 와서 접사화한다. 동사의 접두사에는 ‘덧-, 엇-, 치-, 티-, 휘-’ 등이 있다.

접미 파생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에서 예가 많다. 명사 파생 접미사로는 ‘-음’형이 계속 가장 활발하지만 ‘-기’형도 생산성이 크게 늘어난다. ‘-이’형은 명사 뒤에서는 아직도 생성력이 높으나, 용언 어간 아래에서는 생산성이 많이 줄어들며 특히 형용사 어간 아래에서는 새로운 예를 발견할 수 없다. 동사 파생 접미사에서는 ‘-ㅎ-’가 계속 활발하여 다양한 어기에 접미하며, ‘-이-, -거리-’도 생산력을 높여 가지지만, 타동사화 접미사 ‘-으-’는 사라진다. 강제 접미사가 다양해져 ‘-왈-, -잇-, -티-, -혀/켜-, -뜨-’ 등이 쓰인다. 형용사 파생 접미사로도 ‘-ㅎ-’가 가장 활발하며, ‘-듭/ㄷ뵈-’는 ‘-되-’로, ‘-롭/ㄹ뵈-’는 ‘-롭-’으로 통일된다. ‘-스럽-’은 18세기 중엽 이후부터 보이나 ‘-브/브-’는 새로운 생산력의 확대를 가지지 못한다. 부사 파생 접미사에서는 ‘-이, -히’형이 계속 생산성이 가장 높으며, ‘-오/우’는 생산성이 약화된다.

합성어 형성은 명사, 동사, 부사에서 활발하다. 명사 합성은 대부분 통사적 합성법에 의한다. 사이시옷은 근대에 들어 통사적인 구절을 만들기보다는 단어 형성으로 기능이 축소되어 간다. 동사 합성에선 선행 어간에 바로 후행 어간이 오는 비통사적 합성법이 아주 약화되고, 어간 사이에 ‘-아’가 들어가는 통사적 합성법이 생산성을 크게 늘린다. 중첩에 의한 합성 부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다.

(문장의 구성 성분이나 문장의 유형, 그리고 문장의 접속과 내포 양상은 중세에서의 용법과 별반 다름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사동 표현은 사동사에 의한 직접 사동문에서 점차 간접 사동문으로 향하는 통시적인 변화의 방향이 뚜렷하다. 중세에서 ‘-이-’형을 취하던 사동사 가운데 상당수가 ‘-히-, -리-, -기-, -우-’ 등으로 바뀌며(예: 열리다), 사동사 형태가 없어지기도(예: 히다) 한다. 영형태의 사동사형은 중세에서 종종 있었지만 후기를 넘어서며 사라진다. 새로운 사동 접미사로 ‘-초/추-’를 더할 수도 있지만, 중세에서 ‘-호/후-’형이었던 ‘가초-, 머추-’ 등이 ‘감초-, 멈추-’로 바뀐 이 동사들은 실제론 사동의 뜻이 없는 단순한 타동사이다.

피동 표현도 직접 피동문보다 간접 피동문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피동사의 분포에서 ‘-이-’형은 줄고 ‘-히-, -리-, -기-’형은 늘어난다. 피동 접미사가 겹치거나 피동사가 간접 피동문 형태를 취하여 피동 표지가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피동문이 간혹 보이는데, 이는 현대에서도 그러하다.

주체 높임의 ‘-시-’에 ‘-습-’을 더한 ‘-습시-’형이 주체를 더 높이는 표현으로 쓰이

는 예가 중세에서 아주 드물게 보였는데, 근대에선 그 쓰임이 확대된다. 객체 높임이 ‘-습-’형으로 나타내는 표현은 몇몇 특수한 동사로나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축소된다. 상대 높임은 전기에 ‘아주 높임, 예사 높임, 낮춤’에 따라 ‘호쇼셔체, 호소체, 호라체’라는 세 등급을 갖는데, 이는 중세에서 예사 높임의 ‘호야셔체’가 ‘호소체’로 바뀐 것이다. 후기에는 여기에 ‘호오체’가 보태지고, 19세기에는 ‘-지’와 ‘-어’가 각 종결형에 두루 쓰이면서 반말체를 더한다. 중세에서 ‘호쇼셔체’의 평서문이나 의문문에 나타났던 ‘-이-’는 ‘-이-’로 바뀐다. 상대 높임에서도 ‘-습-’이 ‘-이-’ 앞에 덧붙여 높임의 정도를 더하는데, 이는 말기에 ‘-습니다’형으로 발달한다.

시제 범주는 근대에 들어 이전보다 서법적인 성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는 하지만 아직 서법 범주와 관련성이 적지 않다. 현재 시제로 안긴 문장(종속절)에서는 ‘-ㄴ-’이 16세기부터 쓰이고 ‘-는-’이 17세기에 나타났으나, 17세기에는 안은 문장(주절)에서도 이들이 쓰인다. 과거 시제는 단정법 ‘-니-’와 회상법 ‘-더-’가 계속 쓰이면서, 16세기부터 나타난 ‘-앗-’이 빠르게 쓰임을 늘여 간다. 미래 시제로는 추측법 ‘-리-’가 계속되지만, 18세기 말에 출현한 ‘-겻-’이 점차 세력을 넓혀 간다. 이처럼 서법과 관련이 비교적 적은 ‘-엇-, -겻-’과 더불어 ‘-는/ㄴ-’로 이루어지는 말기의 새로운 시제 체제는 이제 서법과 상당한 거리를 가지는 시제 범주를 형성하게 된다.

서법에는 확인법 ‘-거-’와 단정법 ‘-니-’, 회상법 ‘-더-’ 감동법 ‘-똥/도/룻/로-’ 등이 있는데, 서법 표지들의 사용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여서, 후기에 들면 확인법이나 단정법 등은 고투적(古套的)인 표현에 속하기 시작한다. 동작상 표현은 중세와 대체로 같다. 다만 중세에서 진행상을 나타내는 ‘-아 잇-’이 근대에서는 ‘-고 잇-’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부정법(否定法)은 중세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형용사에서 단형 부정 형태의 쓰임이 중세에 비해 크게 줄고, 특히 ‘묻/뭇’이 온 단형 부정형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장형 부정은 ‘-디 아니호-’형뿐만 아니라 부정소 ‘아니’ 앞에 용언의 어근, 명사, ‘-어, -게, -기, -음’ 등 명사성 어미 등이 올 수 있는데, 이들은 『+Nominal』의 특성을 갖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디 아니호-’ 형태가 점차 분포와 빈도를 더해 간다. 부정소 앞의 ‘-디’는 초기부터 ‘-지’형이 함께 나타난다.

4. 현대 한국어의 문법사적 특징

현대 한국어는 오늘날까지도 포함하므로 그 하위 시기를 좀더 세분하여 문법사적 특징을 살핀다. 하위 시기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갑오경장 이후 오늘날까지의 현대 한국어 전체를 셋으로 나누기로 한다.

1) 제1기(1894-1910): 현대 한국어 형성기

현대가 시작된 제1기는 현대의 모습을 형성해 간 시기이다. 19세기 후반을 맞아 서구 문화 수용으로 시작한 근대화 물결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는 언중들이 사용하는 언어에도 영향을 주어, 한국어가 여러 부문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우리말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특히 문자 생활에서 획기적인 혁명이 일어난다. 1894년 갑오경장은 정부가 주도한 문물 개혁이었지만 언중들의 언어 인식과 표현 양상에 변화를 주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는 언어적 체계 면에서도 변화가 폭넓게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17세기 초부터 시작된 ‘근대 한국어’는 19세기 말에 들어 ‘현대 한국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 파생법에서 찾을 수 있는 변화라면 접사의 목록이나 의미 면을 꼽을 수 있다. 근대 시기의 접두사 가운데 ‘아촌-’이나 ‘데-’ 등이 사라지고, ‘선-/선-, 열-’ 등이 새로 나타난다. 접미사로는 명사형 ‘-이/-의’ 등이 사라지고, ‘-나기/-내기, -보’ 등이 생긴다. 명사형 접미사에는 아직 ‘-음’형이 더 많으나 이전 시기보다는 ‘-기’의 생산력이 높아진다. ‘-스럽-’이나 ‘-답-’형의 형용사 생성이 활발하고, 고유어나 외래어에 ‘-하-’를 접미하여 용언화하는 파생도 더욱 늘어난다. 특히 국한문 혼용 표현이 늘면서 한 음절의 한자에 ‘-히’를 붙여 부사어를 만드는 표현이 많이 보인다.

합성 명사에서는 앞 뒤 명사 사이에 ‘-의’가 개입하는 합성법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다. 합성 동사에서는 선행 동사의 어간에 ‘-고, -디’를 접미하는 형태가 새롭게 생산력을 얻는다.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일컫는 ‘동사 어간 + 동사 어간’ 형태의 합성 동사가 통사적인 합성 동사로 바뀌는 변화가 중세 이래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서도 그러한 어휘들이 보인다(예: 잡들다>잡아들다).

격조사 형태는 일부 문헌에서 이전 시대의 모습을 보인다. 가령 ‘가’형이 놓일 주격/보격 조사 자리에 ‘ㅣ’나 ‘이’형이 쓰인 것 따위이다. 주어적 속격도 아직 널리 쓰인다.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형은 그 형태 목록이나 용례가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보조사는 이전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목록이나 의미값에 큰 변화가 없다. 다만 근대 시기까지 보조사와 부사로 두루 쓰이던 ‘더불어’가 현대 제1기에서는 이미 부사로만 쓰임이 제한된다. ‘나마’는 근대 시기에는 ‘그 위에 더하여’라는 뜻을 가졌으나, 이 시기에서는 ‘불만족한 선택’의 의미로 바뀐다.

선어말 어미에도 그 형태나 기능상에 변화가 생긴다. 존칭 선어말 어미 ‘-시-’에 ‘-아/-어’가 결합되어 ‘-샤’로 실현되던 것이 점차로 ‘-시어’로 바뀌기 시작하고, 서술격 조사 뒤의 ‘-더-’가 ‘-러-’로 바뀌던 것이 그냥 ‘-더-’형으로 쓰이기도 한다. 상대 높임의 ‘-이-’는 아직 일부에서 쓰인다. ‘-시-’에 선행하던 ‘-습-’은 ‘-시-’에 후행하면서 ‘-시옵/십-’형으로 굳어져 쓰이기 시작한다. ‘-늑-’은 ‘-늑이-’형이거나, 관형사형 어미와 결합한 ‘-난’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형 ‘-니-’는 ‘-엇-’으로, 미래 추정의 ‘-리-’는 ‘-겻-’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러한 변화가 구어에서는 이미 확연하다.

종결 어미로는 아직 ‘-다’보다는 ‘-라’형이 많이 쓰이나, ‘-다’형도 종종 보인다. 또 ‘-다’ 아래에 연결 어미가 결합한 형태(예: 흐엿다논디, 흐엿다니)가 많이 쓰이기 시작한다. 연결 어미 가운데에는 ‘-과더, -관디’ 등의 형태가 사라지고, ‘-러’ 형태 등이 새로운 쓰임을 갖기도 한다. 종결 어미의 단모음화가 시작되고, 축약형도 여럿 나타난

다. 또 종결 어미의 종류가 다양해져서, 가령 의존 명사에 서술격 어미가 결합한다든지, 연결 어미나 전성 어미가 그대로 종결형으로 쓰인다든가 하는 등의 양상을 보인다. ‘-흠, -흠, -히시압’과 같은 명사형 종결법이 신문 등에서 보이는데, 이는 근대 시기의 역어류 등에서 일부 보이던 표현과 맥락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청유형 ‘-읍시다’형도 이 시기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다.

현대에 들어 통사 부문에서는 큰 변화를 가지지 않지만 다소의 변화는 찾을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시제 체제는 비교적 차이를 크게 보이는 문법 범주이다. 근대 이전까지 서법적인 요소와 유착성이 강하였던 시제가 현대에 들어서는 독자적인 문법 범주로서의 영역을 훨씬 뚜렷이 한다. 그것은 ‘-니-, -더-, -느-, -리-’ 등으로 주로 표현되던 시제 형태소가 ‘-엇-, -는-, -겻-’ 중심으로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 형태 체계는 근대 이후 점차로 시제적 성격을 높여 왔는데, 이러한 진행이 현대에 와서 시제 범주로서의 체계적인 안정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의 ‘-니-, -리-’는 더욱 서법적인 기능으로 위치를 잡아 간다. 물론 제1기에서는 아직 이들 두 가지의 형태소군이 모두 시제적인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위와 같은 방향성이 매우 뚜렷해진다. 이러한 체계화의 확정은 ‘-엇-’으로 하여금 중첩형 ‘-엇엇-’을 이루어 상(相)적인 표현으로 확대해 갈 수 있게 한다.

중세에서 객체 존대를 나타내던 ‘-습/읍-’은 근대에서 상대 존대로 그 기능을 바꾸었지만, 개화기 때에도 아직 남아 ‘하옵시-’와 같은 극존칭 형태로 일부에서 쓰인다. 상대 존대의 ‘-이-’도 일부에서 남아, 주로 ‘호오이-, 호압늑이-’형으로 나타난다. 근대 말기의 상대 높임 화계 ‘호쇼셔체, 호오체, 호게체(호소체), 호라체’와 반말체의 ‘-어, -지’는 대부분 현대 제1기에 그대로 이어지며 ‘호십시오체’와 ‘호셔요체’가 추가된다.

근대 이전에는 주로 접미사에 의해 피동과 사동의 표현이 나타났으나, 현대에 들어서는 어휘나 통사적 구조에 의한 피·사동이 부쩍 많아진다. 즉 피동에서 ‘~ 당하다, ~ 받다’형이나 ‘-어지다’형의 표현이 크게 늘고, 사동에서도 ‘~ 시키다’와 같은 어휘적 표현이나 ‘-게 하다’와 같은 통사적 표현이 늘어난다. 그 결과 피동 접사 다음에 ‘-어지다’가 덧붙는 형태도 가끔 나타난다. 피동형 접사에는 ‘-이-’와 ‘-히-’, ‘-이-’와 ‘-리-’ 등이 혼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은 사동형 접사에서도 보인다.

부정법(否定法)에서는 합성 동사의 선·후행어 결합을 분리하거나, 동사의 어근과 접사를 분리하여 그 중간에 부정어 ‘아니’가 들어가던 방식이 이 시기에 와선 거의 없어진다. 그러나 부정어는 아직 ‘안’이 아닌 ‘아니’로 쓰인다.

제1기까지의 문헌에서는 문장의 길이가 매우 긴 접속문이 많다. 등위 접속문은 ‘-니, -고’ 등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종속 접속문에서도 동일한 접속 어미를 되풀이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긴 문장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내포문에는 명사화 구조가 이전 시대보다 줄고, ‘-은/-을 것’ 등과 같은 보문화 구문이 현저하게 늘다. 인용 보문소 ‘-고’가 없는 인용절이 아직은 더 일반적이지만 ‘-고’ 인용문도 이제 널리 쓰인다.

2) 제2기(1910-1945): 우리말 공용어기

파생 접두사로는 ‘힛-/헛-, 처-/쳐-’ 등이 새로이 보이고, ‘민-, 치-, 애-, 순-’ 등의 용법이 생산성을 가진다. 명사 파생 접미사에서는 ‘-기’형이 ‘-음’보다 생산성을 더 얻으며, ‘-이’형도 구체 명사나 추상 명사로 두루 나타난다. ‘-적(的), -화(化), -성(性)’ 등을 접미한 신조어도 다량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 활발하였던 ‘1음절 한자어 + -히’ 구성은 많이 줄어든다. 이에 반해 기존의 1~2음절의 단어(특히 명사)에 접미사를 붙여 2~3음절로 안정화하는 변화(예: 모>모통이, 잎>잎사귀)는 늘어난다.

이 시기에는 한자어 합성어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일본어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일본어나 서양 외래어와 우리말이 결합하는 합성어도 급증한다. 상징어에 다양한 중첩어가 늘고, 이러한 말들이 일상어로 다량 수용된다. 새로운 합성어들에서는 종속 합성어보다는 등위 합성어가 더 많은 예를 보인다.

주격 ‘이’와 ‘가’의 쓰임은 이제 음운론적으로 뚜렷한 상보성을 확보한다. 주어적 기능을 가진 속격이 간혹 쓰이기는 하지만, 이는 의고적인 용법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초기부터 서술격은 ‘이라’가 아닌 ‘이다’형으로 대부분 바뀌는데, 이는 구어적 문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이다. 부사격 ‘에’나 ‘로’ 등의 용법이 좀더 넓어져 오늘날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갖는다. 처소격 ‘에’나 ‘에게’에 ‘서’ 또는 보조사가 덧붙는 표현이 이 시기부터 널리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이전 시기에서도 쓰이던 방식이었으나 결합 형태가 광범위해지고 빈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 외에도 어휘격 조사와 다른 조사의 결합,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이 점차 이전 시대보다 좀더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선어말 어미에서는 존칭형 ‘-샤’가 대부분 ‘-시어’로 바뀌고, 서술격 조사 뒤의 ‘-러-’도 대개 ‘-더-’형으로 나타난다. 상대 존대의 ‘-이-’가 따로 쓰이는 경우는 이제 사라지고, 어말 어미와 결합하던 ‘-습-’의 용법도 생산성을 잃는다. ‘-느-/느-’와 관형사형 어미와의 결합형 ‘-난/-는’형은 점차 ‘-는’으로 통일되어 간다. 이전의 선어말 어미 ‘-느-’와 ‘-이-’가 ‘-니-’로 결합하여 ‘-습-’ 아래에 놓이게 된다. 과거형 ‘-니-’는 ‘-엇-/엇-’형으로, 미래 추정의 ‘-리-’는 ‘-겻-/겻-’으로 대부분 바뀌면서, ‘-니-’와 ‘-리-’는 서법적인 요소로 일부 남는다.

의존 명사 성격의 한자어를 포함하는 연결 어미(예: ‘-은즉, -는고로’ 등), 그 밖의 일부 연결 어미들(예: ‘-을진단, -거드면’ 등)이 상당수 그 사용이 줄거나 사라져, 오늘날 연결 어미 체계를 이 시기에 갖추기 시작한다. 오늘날 사용되는 종결 어미 목록도 이 시기에 이미 체계를 갖추는데, 종결 어미에서 비격식체의 사용은 이후 점차로 늘어 간다.

새로운 시제 형태소 ‘-엇-/엇-, -는-, -겻-/겻-’에 의한 시제 체계는 확고해지고, ‘-니-, -리-’는 이제 서법 표현 형태소로 자리를 잡는다. 물론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겻-/겻-’은 아직 시제적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고 서법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진

다. 이와 같은 ‘미래’ 시제 영역에는 ‘-겠-’과 더불어 ‘-을 것이-’가 함께 쓰이기 시작한다.

3인칭 대명사로 ‘그’가 확립되면서 작가들이 3인칭 여성형으로 ‘그녀, 그네’를 설정한 것도 이 시기이다. 비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쓰인다든지, 반복되는 어휘 명사를 대명사화하거나 재귀사로 받는 등의 용법은, 일본어를 통한 서양어의 영향으로 보인다.³⁾ 일본어식 어구의 도입도 활발하여 1940년대에 그 절정에 이른다.

주체 극존칭으로 ‘하옵시-’형이 문어적으로 쓰인다. 상대 존대의 ‘-이-’가 단독으로 쓰이는 예는 사라지고 ‘-느-’와 결합한 ‘-니-’가 ‘-습-’ 아래에 이어진다. 한편 ‘드리다’가 보조 용언으로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하여 객체 존대의 표현을 크게 보강할 수 있게 된다. 상대 높임에서 비격식의 해요체와 해체가 이전 시기보다 훨씬 일반화한다. 제2기에는 호쇼셔체의 쓰임이 한정적으로 줄어들어 기본 화계에서 제외된다.

접미사에 의한 파·사동 형태가 통사적인 구조의 파·사동 표현으로 바뀌는 현상이 지속되어, 접미 파·사동형 가운데 많은 수가 사라진다(예: 검기다(黑), 물니다(軟) …). 피동이나 사동의 접미사로 ‘-이-, -히-, -리-, -기-’가 혼동되던 형태는 이제 대부분 한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날리우다’와 같이 이중 사동 형태는 이 시기에도 많이 나타난다. 근대는 물론 현대 제1기에서도 사동 표현에서 잉여적으로 자주 쓰이던 ‘-로 하얏다’ 형태도 이 시기에는 거의 사라진다. 이전 시대에 비해 피동과 사동 표현이 무척 많아지는데, 이러한 현상에는 서양어를 따른 일본어의 영향이 크다.

제2기에 들어 나온 문헌에는 언문일치 운동의 결과로 접속문의 수가 줄어서 문장의 길이가 무척 짧아진다. 한 문장 안에 소속된 접속문들에서 공통적인 형태들은 후행절로 귀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같은 접속 어미들의 되풀이 현상도 줄어들어간다. 피동, 사동, 부정 표현에서 통사적 장형이 늘고, 체언화 내포문 대신에 보문화 구문을 쓴 표현이 이전 시기 때보다 더욱 확대된다.

3) 제3기(1945-): 국어권 분단기

광복을 맞아 우리말을 국어로 다시 사용하게 된 제3기는 우리말이 크게 발전을 하고 안정화를 얻는 시기이다. 또 이전 시기에 비해 사회나 문물의 변화가 빨라 이에 따라 언어의 변천이 그 속도가 빨라지고 폭도 커지고 있다. 광복과 6·25를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언중들의 이동이 매우 많아 각 지역의 방언에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맞춤법과 표준어 등 언어 규범이 제정되어 언어생활에 전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대량 전달 매체가 한국어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최근에는 웹이나 앱 등 전산 매체를 통한 언어 표현에서 축약이나 생략 및 혼성 등이 단어 차원을 넘어 구절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파생 접두사들 가운데에는 의미를 확대하는 용법들이 많다. 가령 ‘날-’은 ‘생(生)’의 뜻 외에 부정적인 의미를 더한 용법(예: 날강도, 날도둑)으로 쓰인다. 이같이 부정적인

3). 이들 가운데에는 영어를 비롯한 서양어에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대명사화나 재귀사화 등은 이런 영향 관계를 좀더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의미를 강화하는 접두사 ‘개-, 처-’ 등이 좀더 생산력을 갖기도 한다. 접미사 ‘-적, -화, -성’은 대단한 조어력을 발휘하고 있다. 명사형 ‘-기’ 파생의 생산성은 매우 높아 지지만 ‘-음’ 형은 생산성은 아주 낮아지고 있다. 외래어와 결합한 파생 명사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한자어와 고유어와의 결합도 다량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단어 형성 규칙에 어긋나는 조어도 간간히 생기면서(예: ‘먹거리, 몰래카메라, 먹튀’) 새로운 단어 형성법을 만들어 가고 있다.

단어 합성도 고유어보다는 한자어에서 훨씬 더 많은 예를 보인다. 서양어와 우리말의 결합도 매우 활발하다. 새로운 어휘의 필요에 따라 파생어와 합성어가 급증하는 실태이다. 이러한 필요성으로 합성어 어기의 파생어, 파생어 어기의 합성어도 다량 늘어나고 있다. 최근 들어 음소나 음절을 축약 또는 생략하면서 간략화한 형태로 새로운 말을 만드는 현상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이는 단어 차원뿐만 아니라 구절에까지 이르고 있다.

어휘적 형태가 문법 형태화해 가는 경우(예: -어 치우다, -을 정도이다)도 많이 늘고, 반대로 문법적 기능이 강한 요소가 어휘화하는 경우(예: 뿐, 나름)도 많아지고 있다. 어근과 접사 관계에서도 이러한 교차가 일어나기도 한다(예: 맨).

선어말 어미로 상대 존대의 ‘-이-’와 객체 존대의 ‘-습-’ 용법은 완전히 사라지며, 회상의 ‘-더-’ 용법도 매우 제약이 많아진다(예: -더면>-있더라면). ‘-느/느-’와 관형사형 어미와의 결합형으로서 ‘-난’형은 없어지고 ‘-는’만이 쓰이고 있다. 과거형에는 ‘-았-’, 미래 추정에는 ‘-겠-’으로 단일화하고, ‘-니-’와 ‘-리-’는 분포가 극히 제한된 채 ‘단정’과 ‘추정’의 서법 요소로 쓰인다.

현대에서 시제 범주는 상(相)이나 서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상과는 매우 밀접하기도 하지만, 시제 자체로서 독립적인 범주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직도 ‘-겠-’은 미래 시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서법적인 기능이 크며, 이와 비슷한 위치에 ‘-을 것이-’가 있다. 전자는 화자 중심의 표현에서, 후자는 일반화한 시각의 표현에서 주로 쓰인다.

2인칭 주체 극존칭으로 ‘하옵시-’형이 문어체에서 일부 쓰이고 있다. 오늘날에는 ‘하십시오체, 하세요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라는 1원적인 기본 화계를 설정하게 된다. 상대 높임에서 이웃 등급 간에 교체(switching) 현상이 이전 시기에서보다 훨씬 많이 발견된다. 압존법도 약화되거나 무시되어 간다. 이에 반해 비격식적인 해요체와 해체가 이전 시기보다 더 폭넓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상대 존칭에서 등급이 간소화하고 중화되어 가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접미사로 나타내던 피동과 사동 형태가 통사적 구조의 피·사동 표현으로 바뀌어 가는 흐름은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서양어 등의 영향으로, 피동 표현(‘-어지다’형)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 시키다’ 형의 표현도 과도한 경우가 많다.⁴⁾ 이 같은 용법으로 ‘-어지다’는 화자의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는 등의 다양

4). 이 시기에 들어 이 같은 피동이나 사동 표현이 더욱 늘어난 것은 일본어보다는 서양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한 서법적 기능 표현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통사적 구조의 피동과 사동 표현이 더욱 세력을 넓히는 것은, 부정법, 명사화 표현, 미래 시제 표현 등에서 접미사나 어미 등의 형태론적 표현보다 통사적 구조 표현으로 그 사용이 늘어 가는 전반적인 경향성과 그 궤를 같이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5. 마무리

한국어 문법사를 중심으로 ‘고대 한국어, 중고 한국어,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 현대 한국어’라는 시대를 구분하고, 근대 이후의 한국어의 문법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는 전체 한국어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또한 문법사 나름의 변화 체계도 설정해야 하며, 오늘날과 직접 맞닿는 시기에 좀더 많은 조명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

근대 한국어 이후에 우리말 문법 체계는 대체로 간소화의 방향성을 가지며, 형태론적 표현이 통사 구조적 표현으로 발전해 가는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최근에 가까울수록 전통적인 규칙에서 벗어나는 변이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언어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오늘날 그러한 변화는 더욱 크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문어보다 구어에서 더욱 심하다. 근래의 전산 매체 언어는 문어와 구어의 차이를 대폭 줄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연구도 이전까지의 문어 위주에서 벗어나 구어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6-1999. 『국어의 시대별 변천·실태 연구(1,2,3,4)』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사대계간행위원회 2019. 『국어사 연구(1,2)』 태학사.
권재일 1998, 2021.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김영옥 1995. 『문법형태의 역사적 연구』 박이정.
김영항 1978, 1989. 『조선민족어발전력사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김형철 1997. 『개화기 국어연구』 경남대 출판부.
류렬 1990-2005. 『조선말력사(1-6)』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박병채 1989. 『국어발달사』 세영사.
이광호 2004. 『근대국어문법론』 태학사.
이기문 1961, 2006. 『국어사개설』 태학사.
전광현 1978. “근대국어연구의 현황과 과제” 『제21회 동양학학술회의 강연초』 다독대 동양학연구소.
홍운표 1991. “근대국어의 통사론” 『제21회 동양학학술회의 강연초』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홍운표 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홍종선 2017. 『국어문법사』(대우학술총서 618) 아카넷.
홍종선 외 1998. 『근대국어 문법의 이해』 박이정.

- 홍종선 외 2000.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1,2,3)』 박이정.
- 홍종선 외 2006. 『후기 근대국어 통사의 연구』 역락.
- 홍종선 외 2006. 『후기 근대국어 형태의 연구』 역락.
- 河野六郎 1955. “朝鮮語” 『世界言語概説(下)』 東京: 研究社.